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4월)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4월)0 서론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4월)로 봄 예배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4월의 봄바람처럼 믿음도 다시 숨 쉬게 하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아래 기도문을 상황별로 바로 읽게 하옵소서. 짧게 따라 기도해 보세요.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4월)1 새봄 감사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43:19)

주님, 4월의 시작을 감사로 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흠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차가운 계절을 지나 새 기운을 주신 것처럼, 메마른 심령에도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야 할 일'보다 '주님을 만나는 일'을 먼저 두게 하소서.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지친 몸과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작은 감사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봄처럼 따뜻한 환대로 서로를 품고, 상처 난 이들을 밀어내지 않고 천천히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가 한 주의 방향이 되게 하소서. 고백이 삶이 되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시편 51:17)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서면 숨길 것이 없음을 압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말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쉽게 판단하고, 용서를 말하면서도 마음을 닫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내 뜻이 꺾일까 두려워 기도보다 변명을 택했던 시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의 교만과 비교와 냉소를 씻어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회개가 자책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돌이킴이 관계의 회복과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길을 따라 순종을 선택하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예배가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15:20)

주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소식이 우리의 낙심을 깨우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답이 없어 보여도 주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상실과 실패, 관계의 단절로 마음이 무너진 이들을 주님이 먼저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끝났다'고 말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새 출발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교회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말이 아니라 섬김과 정직과 나눔으로 복음을 보여 주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과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기쁨이 스며들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부활의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살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걷게 하옵소서. (잠언 3:5)

주님, 배움의 자리마다 주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4월의 중간고사와 과제, 진로의 고민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적과 결과로 자신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소서. 집중이 흐트러질 때에는 마음을 정돈해 주시고, 게으름이 고개 들 때에는 건강한 절제를 주옵소서. 선생님들과 부모들에게는 사랑과 인내를 더하셔서 아이들을 다그치기보다 길을 비추는 말로 격려하게 하옵소서. 청년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문이 닫히는 경험 속에서도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만남과 기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공부와 경쟁이 아니라 사명을 준비하는 길이 되게 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30:17)

주님, 일교차와 미세먼지, 꽃가루로 몸이 약해지는 계절에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숨 쉬는 것조차 불편한 날에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합니다. 아픈 지체들의 통증을 덜어 주시고, 치료 과정 가운데 두려움이 커지지 않게 하옵소서. 의료진에게는 정확한 판단과 섬세한 손길을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작은 습관을 돌보며 몸을 성전처럼 아끼게 하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평안을 부어 주시고, 상담과 도움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배우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편 46:1)

주님, 각종 사고와 재난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땅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 주시고, 위기의 순간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허락하옵소서. 산불과 홍수, 큰 사고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필요한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구조와 복구에 힘쓰는 이들에게 체력과 용기를 더하시며, 무리한 판단이 아니라 생명을 우선하는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안타깝다'는 말에 머물지 않고, 나눔과 봉사로 이웃의 짐을 함께 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일상 속에서도 안전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공동체가 서로의 생명을 지키는 습관을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 두려움이 우리를 묶지 못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게 하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이 땅을 덮어 주옵소서. (아모스 5:24)

주님,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이 커지고 말이 거칠어지는 시대에,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공정이 무너진 곳에는 바로 세워 주시고, 약한 이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게 하옵소서. 세월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억이 분노만 남기지 않도록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불확실함 속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빚과 생활비로 눌린 가정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정책과 공동체의 돌봄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특정 편을 드는 말로 상처를 더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섬김으로 화해의 다리를 놓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웃을 위한 눈물과 행동을 주옵소서. 작은 선행이 모여 공동선이 세워지게 하시고, 자비가 이 땅에 흐르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5:14)

주님, 4월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가 익숙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늘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새가족을 보내 주셨다면 한대의 손길을 넉넉히 주셔서 낯선 이들이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섬기는 자리에서 지친 봉사자들에게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맡겨진 사역이 짐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세대가 믿음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예배와 교회학교가 서로를 살리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지역을 향해 문을 열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가까이에서 돌보는 사랑의 거점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통해 이름보다 사랑이 드러나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살리는 예배, 한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시편 127:1)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4월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식탁과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말이 엇갈릴 때마다 상처 주는 표현을 멈추게 하시고, 먼저 사과할 용기를 주옵소서. 부부에게는 존중과 신뢰를 더하셔서 사랑이 습관이 아니라 선택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안정과 기쁨을 주옵소서. 홀로 지내는 성도들에게는 외로움이 깊어지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가 가족이 되어 따뜻한 자리를 내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경제와 건강의 문제로 눌릴 때, 주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절제를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화해의 은혜로 우리 집안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작은 감사와 칭찬이 쌓여 사랑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머무르게 하옵소서. (신명기 28:12)

주님, 일터에서 땀 흘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실적과 평가, 계약과 매출의 압박 속에서도 믿음이 뒤로 밀리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선택을 붙들여 주옵소서. 구직 중인 이들에게는 낙심이 길어지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자리에 합당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는 지혜로운 판단과 건강한 관계를 주셔서 사람을 소모하지 않고 함께 살리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물가와 대출, 생활비로 마음이 무거운 가정들에 필요한 공급을 허락하시고, 교회가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공'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시간과 재정을 선하게 사용하는 청지기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길을 통해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로 버티게 하시고, 평안으로 하루를 마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8)

주님, 복음이 필요한 곳을 기억합니다. 전쟁과 박해, 가난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에 주님의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선교지의 교회들과 사역자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고,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언어와 문화의 벽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만남 하나도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후원에 그치지 않고, 다음세대와 함께 선교의 마음을 배우며 삶의 자리에서 '보내는 교회'로 살게 하옵소서. 국내에 들어온 이주민과 유학생, 난민 이웃을 향해서도 두려움 대신 환대를 선택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넓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땅 끝의 한 영혼에게 닿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시편 119:105)

주님, 4월의 분주함 속에서도 말씀 앞에 앉게 하소서. 기도는 늘 미루면서 걱정은 붙잡고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침을 열 때 짧게라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하루의 선택마다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에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시며, 상처 난 마음을 말씀으로 싸매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원하는 것만 쏟아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듣는 침묵도 배우게 하옵소서. 믿음이 감정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작은 순종 하나라도 실천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붙드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짧은 기도라도 진심으로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걷게 하옵소서.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